

국제교환훈련으로 글로벌 리더십 배워

한국4-H 국제교환훈련 일환 태국인 2명 고성방문 ... 이용주씨 농장서 5박6일 문화교류

동해안 최북단 고성에서 4-H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우정을 쌓는 시간이 마련됐다.

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덕(德)·노(勞)·체(體)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청년농업인 4-H회원의 경우 우리 농업과 농

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 자질을 배양하는데 있다.

한국 4-H본부에서 세계화시대를 맞아 4-H 국제교환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태국인 2명이 고성군 영농 4-H 회원인 이용주(23세)씨의 간성을 장신2리 농장을 방문해 5박6일 동안 체류하며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5박6일 동안 농가 입주를 하며 고성군 회원들과 함께 가시오가피와 개량산머루 전정작업, 장뇌삼 재배, 감자수확, 전통 테마마을 숲 체험 등을 하고 우리 지역의 유적지 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또한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화진포의 성을 견학했다.

국제교환훈련은 한국 4-H본부가 국내 회원과 외국인 회원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적 견문을 확대하고 우의증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4-H관계자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문화체험, 농업기술 습득 및 농촌체험 등을 통해 자기개발과 아울러 글로벌한 사고를 기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세계화시대를 맞아 4-H 국제교환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고성군을 방문한 태국인 2명이 8일 고성군청을 방문했다.

장애인 재활사업 역량 강화 논의

고성군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협의회 개최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사회협의체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사회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협의회를 개최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장애예방,

인식개선 등 재활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0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2011년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장애예방교육 및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생애주기별 대상 재활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했다.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송명옥씨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활사업 서비스 제공과 장애 예방 및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지역사회중심재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재활 사업을 실시해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개최

고성군노인복지회관은 지난 7일 오전 11시 2층 소망터에서 기관 관계자 및 시설 운영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 사업결과 보고,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안) 심의,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제출 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근 기자

(주)진로 향토장학금 300만원 전달



(주)진로 강릉지점 황봉남지점장과 속초영업소 이병기 소장은 지난 4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매월 50만원씩 적립한 2011년 상반기 향토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장학금은 (주)진로에서 수입의 일부분을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천만원을 목표로 조성해 매년 상·하반기씩 기탁하고 있다.

(주)진로는 고성의 대표 축제인 명태축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취임 축하 쌀’ 어려운 이웃에 전달

1일 취임 김흥희 속초해경 서장 ... 화환 대신 쌀 받아

속초해양경찰서 김흥희 서장이 취임에 즈음해 지인과 친지, 가족들로부터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기탁해 화제다.

지난 1일자로 제16대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서장은 좋은 일에 쓰겠다며 지인과 친지로부터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보내 줄 것을 부탁, 쌀 20kg들이 19포대, 10kg들이 10포대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받은 ‘축하 쌀’은 속초 봉사활동공제와 거진 및 주문진 독거노인 등 기초수급대상이 아닌 어려운 이웃에 전달됐다.



지난 1일 취임한 김흥희 속초해경 서장이 취임축하 화환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김흥희 서장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계층을 돌보

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주는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호 기자